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국민편익 '공공마이데이터·디지털' 적극 추진

윤 김연일기자 | 승인 2026.03.15 13:46

여주이천지사, 관내 농업인 실질편익 제공·상용화 적극 소통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제공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도입한 '농지임대수탁사업' 디지털 서비스 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일선 지사 등과 적극 협업을 통해 적극 소통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농지은행 임대수탁 전자계약

신청방법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회원가입

위탁자(농지소유자)

농지 내놓기 > 임대 신청

임차인(농지경작자)

농지 구하기 > 임차 신청

진행순서



* 위탁자(농지소유자)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후 관할 지사에 아래 서류 별도 우편발송 필요

임대차 위탁자(농지소유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별), 통장사본

사용대차 위탁자(농지소유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별)

서명과정



계약 완료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상담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여 방문 없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가능!

* 문의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지사

krf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전자계약 안내문.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 행정복지센터등을 방문해 발급받아 공사에 제출하던 8종의 필수서류를, 발급기관과 공사 등 두 곳 모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손쉽게 접수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로 발급 비용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이동 불편 해소 등 다양한 편익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3만 1천여 명이 이용하는 호응을 보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의 디지털 서비스 도입은 각종 서류제출 과정에서 편익과 더불어 계약 과정에서도 기존 농업인이 공사를 여러번 방문해 서명과 날인 등의 절차를 거치던 방식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장소 구분없이 손쉽게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도록 공사는 배려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현재까지 14만 2천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한 간편한 체결로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체 정보 관련해서도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해 수정하던 업무를,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농업인이 품질 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여주이천지사 관계자는 농업인과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에 발맞춰 관내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 혁신을 이어가면서, 지난 1월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추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저작권자© 전국매일신문-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일기자